

응용불교학회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 이달 중 잇따라 창립 총회

## 불교학 영역확대 · 지역학회 활성화 기폭제 역할 기대

불교학계의 오랜 화두인 '응용불교학의 영역확대'와 '지역학회의 활성화' 과제가 풀릴 조짐이다.

응용불교학회(가칭, 준비위원장 김응철)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강동균·김응철 외 2명)가 이달 잇따라 창립된다. 불교학과 사회과학의 접목을 통해 불교학의 지평확대 및 불교의 사회화를 연구하는 '응용불교학회'는 6월 중순 창립총회를 가진 뒤 6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교계학회는 유식, 중관, 선사상, 경전연구 등 불교학 내에서는 상당히 영역에만 국한되면서 타학문영역과의 융합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앞으로 응용불교학회는 순수불교학자와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정신과 전문의, 심리치료학자, 법학자 등 분야로서 응용불교학 발전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 간의 교류와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법

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응용불교학회 앞으로는 동국대 박경준·고영섭 교수, 서울대 윤원철 교수, 고려대 조성태 교수, 강원대 정기문 교수, 경기대 진희권 교수, 서강대 노부호 교수, 한별정신병원장 최훈동 원장 등 학자들과 전문가를 다수 회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응용불교학회는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연구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포교, 중무행정, 사찰 운영 등 실무적 영역은 물론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현장과 접목시킨 실증적인 불교학 발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경남지역의 불교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6월 9일 창립, 지역학회 활동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불교와 근·현대사'를 주제로 6월 9일 부산 고신정사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여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생태·환경문제와 동아시아불

교문화 연구를 집중 조명한다.

부산대 김응철 교수는 "그동안 불교학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후보·등재지 자격을 갖춘 불교학술지 대부분이 서울에 편중돼 있어 지방 불교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산·경남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불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재야 불교학자와 젊은 불교학자들의 '사랑방 연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김응철 교수와 동아대 강동균 교수, 동경대 스에키 후미코(末本美子) 교수, 북경대 사회과학원 웨이파오위(魏道儒)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어 국제적 교류 증진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통도사 주지 성파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해홍 스님,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 불교실업인회 김원환 회장 등 범불교계 인사들이 일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n@buddhapia.com

### 천성산 끝내 뚫린다

#### 대법원, 착공금지 재항고 기각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동 구간 원호터널의 공사착공을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동공사와 관련해 천성산 내 내원사, 미타암, 도봉봉, 환경재단인 도봉봉의 친구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게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 구획'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 직후 지음 스님은 "단층대의 위험, 지하수 유출 등은 언급하지 않고 2003년 실시된 대한지질학회의 결과에 비중을 두고 판결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기도 이기는 재판을 하고, 이기고도 양보하는 재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답답하게 심경을 피력했다.

스님은 앞으로 천성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전국 답사를 마무리한 뒤 환경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천희희·박봉영 기자



이동재활치료장에서 신나게 치료받는 어르신들.

## “무릎도 안 시리고 살맛 나”

### 은평복지관 '이동 재활치료차량' 인기



"요즘엔 무릎도 안 시리고, 살 맛 나지 뭐. 일주일에 한번 차타는 재미로 산다니까."

박명자(79·서울시 은평3동) 할머니는 요즘 다리가 나아지면서 활기를 띄웠다고 자랑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성운이)이 운영하는 '이동재활치료차량'에서 꾸준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원래 퇴행성관절염과 요통, 무릎 통증을 달고 살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우울증까지 생겼었다. '병원을 다닐 돈도 없고, 보러 올 자식도 없고, 움직이면 몸이 아파' 할머니는 허전한 무허가 주택에서 누운 채로 숙절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만 했다. 그러나 매주 한 차례씩 집 앞까지 오는 버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로는, 몸도 마음도 날아간 건강해지고 있

다. 물론 치료비는 무료다. 약사보살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손을 뻗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동재활치료차량' 서비스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각종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장비와 운동치료장비, 물리치료장비, 휠체어 리프트와 자기발전기 등 25종의 장비가 장착돼있는 45인승 개조버스로, 불교계는 물론이고 국내 유일의 재활치료전문차량이다.

서울시가 2년 전 버스를 지원한 이후로, 은평구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치료비가 없어 업무를 못내는 저소득·독거노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무료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매 주 쉬지 않고 은평구 내 20개 동을 순회한 덕분에, 벌써 치료건수만 3만 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은비 기자

'코리아 타임'.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시간관념을 질타한 부끄러운 단어다. 이 단어는 비단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한국인'이란 뜻만 지니고 있지 않다. '좋은 것이' '그냥 대중 하지 뭐' 하는 식의 한국인의 고정관념(?)도 내포하고 있던 않을가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불교계학술대회도 이 '코리아 타임'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미나 개최시간이 30분이나 지났음에도 그때서야 부랴부랴 마이크 테스트며 세미나 준비를 하는 것은 아예 관례화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학술대회란 명목으로 대회를 개최하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학답)가 5월 30일 방송위원회의 경인민방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과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의 사퇴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제16차 사회분과회의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및 불교방송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의 권'을 다뤘다. 4월 28일 방송위의 결정이 난지 한달도 더 지난 시점에서 사회분과회는 방송위를 향해 사업자 선정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기독교방송의 성명서에 서명했다며 이성언 사장의 퇴진을 불교방송 이사회에도 요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무원에는 경인민방 문제와 관

### '정신치료학회' 신선한 충격



#### 목탁소리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

지만 제대로 번역된 논문이 없는 논문자료집 발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당연한 시행착오의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잘못만 마인드다. 이런 제반 상황 등에 익숙해 갈 즈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학술대회가 있었다. 바로 최근 열린 한국정신치료학회 학술연선회다.

이 단체는 논문집과 함께 '발표자 평점 및 개선점 의견서'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해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람들도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다음에 열릴 대회를 더 알차게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개선장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 불교계학회도 이런 점들을 본받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노병철(취재부 기자)

런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회의가 중반을 접어들 무렵 사단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탓인지 종회의원 지만 스님은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교계언론이나 총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한심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종도들의 대의기구로 가장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중앙종회가 정작 경인민방 선정과 관련 대응한 일은 3월 임시총회에서 성명서 채택한 것이 전부였다. 기독교방송의 경인민방 참여가 종교간 형평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경고해왔던 교계언론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나보다.

이날 중앙종회 사회분과회의가 경인민방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총무원, 이성언 사장, 교계언론의 무능을 성토하기위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이날 존G 밀리의 책제목 <내보이는 언제나 남의 탓만 한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조종수(취재부 기자)

### 9차 세계여성불자대회

#### 16일 말레이시아서 개막

제9회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츨런시센터에서 열린다.

'세계 다문화공동체 속에서의 여성불자들(Buddhist Women in a Global Multicultural Communit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여성 불자, 불교 교리와 비교문화사회의 정보전달, 비구니 율장과 여성 구족제, 불교교리 번역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과 혜선 스님(동국대 선행과), 김정희 교수(이화여대),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가 논문을 발표한다. 6월 22-24일에는 피난, 이포 등의 사찰을 둘러보는 일정도 마련된다. 국내에서는 발표자를 비롯한 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불자간의 화합과 정보교류, 복지증진,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사카디타(sakyadhita, 석가의 딸들)'라 불리는 세계여성불자협회(회장 소묘)가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개최했다. 이후 2년마다 대회가 열려 왔으며, 지난 2004년 한국에서 8차 대회가 치러지기도 했다. www.sakyadhita.org

여수영 기자

### 인니 지진피해 긴급구호

#### 구호물품 전달 의료진 파견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월 2일 현재 6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이 자체 캠프를 차릴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긴급재난구호봉사단 중외과의 3명을 포함한 의료진 5명 내외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의

료진은 다른 의료지원단체에 포함돼 활동하게 된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만 스님의 애로문 발표, 구호성금 및 물품 전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정도회의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발림)는 5월 29일 2명의 활동가를 피해가 가장 심각한 반투지역에 급파한데 이어 서울 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긴급구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JTS는 "현장의 많은 NGO들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진흥원, 동국대에 1억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6월 1일 이사장실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건학 10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를 이글

어 갈 일제 육성을 위해 이 기금이 잘 쓰여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기삼 총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출연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불교 인재 육성을 통해 학교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남동우 기자

## 세계최대의 석불

#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

산과 섬, 삼천포대교의 휘황찬란한 야경과 한려해상의 일몰이 자연 풍광과 더불어 빼어난 조화가 어우러진 용각산 대방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이 12m의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를 봉선사 조실인 월은 큰스님과 스리랑카 라마니 중정선인 메이다 랑카 큰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대방사가 위치한 이곳은 일찍이 미륵신앙이 깃든 해상관광의 중심지이며, 1978년 3월 보물 제614호로 지정된 사천 홍차리 매항비와 삼천포 향촌 매항비가 바로 미륵신앙의 고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높이 12m 미륵반가사유상 대역사 석불의 조성은 중국 복건성 샤먼(廈門)에서 돌을 가져와 1990년 불사를 시작으로 15년 원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최대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에 전국의 불자님들을 초청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법연(法緣)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 ◎ 일 지 : 불기2550(2006)년 6월 11일(음력 5월16일) 오전 9시부터
- ◎ 장 소 : 대방사
- ◎ 제1부 - 점안의식(09:00)  
총명법사 : 월은 큰스님(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중명법사 : 메이다 랑카 중정 큰스님(스리랑카 라마니 종단)  
법 주 : 도안 스님(대방사 주지)
- ◎ 제2부 - 점안대법회(10:30)  
법어(1): 월은 큰스님(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법어(2): 메이다 랑카 중정 큰스님(스리랑카 라마니 종단)

- ◎ 제3부 - 산사음악회(오후 3시)  
출연진 : 조항조 오은정 외 다수
- ◎ 제4부 - 관동행사(오후 7시)  
미륵대불 관동들이
- ◎ 교통편 : 경부 고속도로 →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 사천IC → 국도 3호선 → 대방사 남해 고속도로 → 사천IC → 국도 3호선 → 대방사

삼천포 | 남해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용각산 기슭

삼천미륵 부처님 도량

## 대 방 사

주 지 도 안 두 손모음

경남 사천시 대방동 44번지 ☎(055)832-6985, (055)833-5197